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안전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죄의 힘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이는 직분이나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넘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새문안 성도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더 큰 축복인 죄의 권세에서 놓임 받기를 더욱 힘써 구하십시오! 이 자유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유’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p.2)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아래의 빈칸을 채우세요.

유대인	○○○ 자유
예수님	○의 ○에서 해방되는 것

②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오늘날 기독교가 죄에 관해 말할 때, 별 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p.3). 그가 말한 ‘죄 용서의 복음’ 과 ‘죄 관리의 복음’ 을 기준으로, 나는 그동안 어느 쪽에 더 집중해왔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정직히 나누어 봅시다.

③ 마귀는 우리가 죄의 힘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여, 그 죄의 힘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슬쩍 집어넣어 정작 에너지를 써야할 곳에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3). 혹시 나에게서는 죄의 힘에 직면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함께 나눠보고, 기도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68장	다함께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8:31~36	다함께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2025. 8. 17. 주일예배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치적, 신체적 자유가 아닌 ‘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속박당하고 육체는 구속당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자유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내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 그것은 ‘죄의 힘(power)’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질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네 안의 죄의 힘에서 해방되어 가고 있느냐?”

※ 내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즉 죄의 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굶주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도 배가 고파, 굶주린 그 소년을 외면하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자유했습니까? 외부 강압은 없어도, 자신의 이기심과 연약함에 포로가 되어 진정 자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 두려움과 불안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죄에 대한 마귀의 교묘한 술책”

그동안 기독교는 죄에 대해 말할 때, 죄를 짓지 않거나, 죄로 인해 벌 받지 않는 것에만 주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용서’ 받는 데에만 집중했지, 용서받은 후에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노예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Dallas A. Wilard)는 이런 기독교의 행태를 꼬집어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죄 용서의 복음’에서 ‘죄 관리의 복음’으로 전략해 버렸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진정 해방되려 하기보다, 단지 죄로 인해 벌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C.S. 루이스(Lewis)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성 다해 섬기는 자는 막을 수 없으니, 그의 인생 가운데 슬쩍 거짓된 것을 밀어 넣어주면, 그곳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

※ 마귀는 우리로 벌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마귀는 오랜 세월동안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을 속여 왔습니다. 죄 지은 후에, 죄의 힘에서 해방 되는 것 대신에, 그저 용서만 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인 “폭삭 속았습니다”는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임수에서 놓임 받아, 우리가 싸울 싸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죄 용서’를 넘어 “우리 안의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의 죄의 힘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 ‘자유’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자유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 자유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